

◆ Spacial Library's Today and Tomorrow

특수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1971년도의 회고와 전망—

박 계 흥
(KIST 도서실 차장)

1. 머릿말

現代社會가 점차 分化되고 專門化 되어감에 따라 特定分野의 活動에 필요한 情報를 조직적으로 수집·정리·소장하고 필요에 따라 情報를 제공해 주는 특수도서관도 分化되어 深層化하여야 할 것이다.

71년도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종연도이자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준비연도로 조국의近代化和 工業化에 상당한 기반이 이루어진 해이다. 그러면 71년 한해동안 특수도서관은 어느정도의 活動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特殊圖書館數

1971년 2월말 현재 「한국도서관 통계」에 의하면 특수도서관수가 142관으로 70년도의 134관보다 8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한국개발원도서관, 과학원도서관 등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도서관을 포함하면 1971년도에는 '70년에 비해 약 10개관 이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69년 129관에서 1970년에 134관으로 약 5관이 증가한것에 비해 증가관수가 약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특수도서관의 관수는 아래와 같다.

연 도	'55	'56	'60	'65	'69	'70	'71
관 수	15	31	41	71	129	134	142

그러나 1967년 UNESCO 통계에 의하면 한국특수도서관의 관수는 對人口比에서 외국에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특수도서관 현황
(1966년 현재)

국 명	인구(천명)	특수도서관 수	1관당인구(천명)
캐나다	19,919	580	34
미국	196,920	6,000	33
인도	498,680	209	2,386

일본	98,865	410	241
한국	29,086	81	359
태국	31,508	90	350
오스트리아	7,290	720	10
체코	14,240	6,000	2
덴마크	4,797	15	320
노르웨이	3,753	157	24
서독	57,485	800	72
스위스	6,050	1,241	5
영국	54,774	1,117	50
소련	233,180	50,762	5

(資料 : UNESCO 통계연감, 1967)

3. 예산

1970년 134관 총예산이 375,637,343원으로 1관당 약 280만원이고, 1971년도는 142관 총예산이 432,812,470원으로 1관당 약 300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1관당 약 20만원의 예산증가를 보았으나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으로는 70년도 예산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특수도서관의 예산

연 도	'64	'65	'66	'67
예산	19,261,508	20,683,918	100,865,075	181,042,203
연 도	'68	'69	'70	'71
예산	174,988,402	457,168,135	375,637,343	432,812,470

4. 직 원

특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달라서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적인 것이 그特徵이기 때문에 인원의 다소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70년도 특수도서관 총직원이 134관, 543명인데 비해 71년도는 142관으로 전연도에 비해 8관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464명으로 79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특수한 전문분야를 취급하고 있는 특수도서관의 전문사서가 70년도 171명에서 71년도 90명으로 약 81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집계상에 잘못이 없다면 매우 우려하여야할 점이다.

'70년도 71년도 특수도서관 대비표

연 도	1970	1971
전 문 직	171	90
기 타	372	374
합 계	543	464

5. 장 서

1970년 134관의 총장서는 1,548,550권으로 1관당 평균 11,556권이고 1971년도는 142관 총장서 1,579,574권으로 연간증가는 31,024권이나 1관당 평균은 11,123권으로 관당평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잡지는 70년 15,666종에서 71년 26,077종으로 약 1,000종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행본이나 잡지나 양의 문제를 떠나 얼마나 최신정보를 수록한 전문주제분야의 자료들인가가 문제가 되겠다. 아래표에서 보면 선진각국에 비해 한국 특수도서관이 어느정도의 장서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국 명	특수도서관수	장서수(천권)	1관당장서수(천권)
카나다	580	5,613	10
미국	6,000	130,000	22
인도	209	3,561	17
일본	410	—	—
한국	81	857	11
태국	90	453	5
오스트리아	720	11,000	15
서독	800	23,100	29
영국	1,177	14,850	13
소련	50,762	994,646	20

資料 : UNESCO 통계연감, 1967)

6. 이용자수

70년도 이용자가 569,514명이고 71년도는 525,680명으로 약 45,000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전문도서관의 직원은 수동적인 Service 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능동적인 활동을 벌려 보다 많은 이용자를 유치해야 하겠다.

7. 도서관대회

1971년 도서관대회는 전국에서 약 600명의 도서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관중별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국회도서관의姜俊浩氏는 "사서직의 자질문제"에서 사서는 전통적인 자질과 정보를 다루는 근대적인 자질을 갖춘 적극형이고 쇄신형이 훌륭한 사서의 자질이라 하였고 또한 수출정보센터 도서관의 김용백氏는 "사서직의 신분인사문제"에의 정확하고 공정한 인사고과표 작성을 주장했다.

8. 끝 맺 음

앞에서 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70년과 71년을 비교함으로써 대충 설명하였다. 그러면 한국특수도서관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필자는 오랫동안 특수도서관에서 종사한 경험에 비추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담구입에 의한 예산절약

이용도가 낮거나 값이 비싼 자료는 도서관 상호간에 장서구성에 관한 협조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분담구입을 위하여는 "상호대차제도"가 필요불가결한 문제가 된다. 미국은 1876년 군의학도서관들이 처음 시도하여 1952년에는 "일반상호대차규정"을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자료의 수집은 汎國家的인 계획으로 Farmington Plan에 의해 세계각국의 학술자료를 분할 분담구입하고 있다. 독일은 1924년 "독일대차제도 수송규칙"을 마련하였고 가까운 일본은 1927년부터 시작하여 1932년에는 전국 고등학교 도서관협의회에 의하여 결정,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64년경까지는 상호대차제도에 관하여 회의적으로 관망하다가 1967년 16개 도서관 대표가 모여 9월 6일 상호대차협정을 공동발의, 同年 10월 11일 "도서관자료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 전문 12조를 채택 11월 20일부터 "상호대차협정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여개의 도서관만 가입하고 있어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전한 종합목록의 정비(1970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4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하여 외국도서 종합목록을 출판하고 있지만 완전한 종합목록이 못된다), 대소도서관과의 대차량의 불균형 시정, 도서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 대차에 필요한 경비확보 등을 하여 활발한 상호대차제도가 이루어져야만 문답수집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문주제분야의 전문적 확보

특수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특수한 전문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서관이므로 이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대학과정에서 전문과목을 이수한 司書들이 맡아야만 효과적인 봉사를 해 줄수 있겠다.

셋째, 국제협력 및 해외훈련

현재 KORSTIC의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와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KLA에서도 하루빨리 IATU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chnological University Libraries) : INTAME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tropolitan Libraries)의 member로 가입하여 구매할 수 없는 자료와 기타 최신 정보자료를 입수 (5면에 계속)

b. 貸出文庫

국립중앙圖書館에서는 빈약한 公共圖書館이나 또는 새로 개관한 公共圖書館에서의 奉仕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립중앙圖書館 소장 도서를 상당량 대출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서관이 부족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公共圖書을 지도 육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 10月 15일에 새로 開館한 扶餘郡立圖書館에 대하여 1,000책을 貸出하였으며, 11月 15일에는 光州學生獨立運動 記念會館 圖書館에 2,400책을 대출하였다.

한편 1968년과 1970년에 각각 대출하였던 坡州郡立圖書館과 原州市立圖書館으로 부터는 모두 1,700책을 回收하였으며, 江陵市立圖書館과 晉州市立圖書館에는 1,920책과 1,500책이 아직 대출중에 있다.

이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每年 새로 開館하는 圖書館에 중점을 두어 많은 도서를 貸出 해 줌으로서 그 지역사회 국민에 대한 도서 열람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支援해 주고 있어서 지방 公共圖書館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기술한 것은 1971年度에 생긴 일들을 사실대로 추려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몇몇 대규모의 公共圖書館이 신설되었다는 사실과 自動車文庫의 창설은 今年度에 있어서의 가장 큰 收穫이라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發展으로서만 만족할만 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이지만 좀 더 확고

한 公共圖書館 發展을 위한 국가적인 強力한 施策이 要望된다. 公共圖書館 설치 5개년 계획이 4개년을 지난 오늘날 매우 부진한 결과를 가져온 여러가지의 원인을 당국에서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진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다행히 당국에서는 公共圖書館 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의 요소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이 시행될 때 우리나라 公共圖書館도 획기적인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公共圖書館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신 李範昇翁의 銅像除幕式이 지난 9月 17日 서울시立鍾路圖書館에서 배풀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때 여러 圖書館 사람들과 관심을 가지는 여러사람들 그리고 동상건립을 직접 책임진 서울시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분의 공로를 다시한번 치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公共圖書館이 오늘 날도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때 60년전에 이미 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忠로圖書館을 창설하신 그분의 가룩한 뜻을 우리들이 되새겨 앞날의 발전을 기약하였다는 것은 우리 公共圖書館 역사상 역시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이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2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더 알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는 바이다.

(17면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해야만 하겠다.

넷째, 정보처리의 Computer 화

오늘 날의 제제는 정보홍수시대이다. 과거 과학기술 정보량은 15년에 2배로 증가했지만 오늘 날은 6년에 2배로 늘고 경제정보량은 5년에 2배로 는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두 소화시키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KIST에서는 수집잡지에 관한 제반정보를 computer 에 入力하여 효과적인 봉사를 해주고있고 앞으로는 단행본도 computer 에 入力할 예정이다. 앞으로 타도서관도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훌륭한 봉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다섯번째, 국내협동체제

첫번째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국과학단지내에 있는 KIST, KORSTIC 을 위시하여 앞으로 이곳에 있게 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원, 과학원 등은 자료의 구

배, 정리, Public Service 에 있어 협동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도서관 협동체제를 구성하거나 관중별로 도서관 협동체제를 구성하여 상호협조를 해야만 되겠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network 를 통한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한국특수도서관의 내일은 결코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다. 위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겠다.

참고자료

1. 조은병; 도서관 상호대차제도의 실시와 문제점. 도서관 1970. 8.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70 1971.
3. UNESCO 통계연감, 1967
4. 太田泰弘; 專門圖書館의未來象. 圖書館雜誌, 1969. 1